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06호

2019. 10. 23.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mailto:nojo@hanyang.ac.kr)

## 법인은 ‘조합원 빼내기’ 시도를 중단하라!

“건넌마을 작은 집 아이들이 똑똑하게 잘 커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데, 이제 우리 큰 집의 호적으로 옮겨서 밥벌이 좀 시켜 봅시다. 내가 큰 형이니 작은 집에서는 거절 못할 것이요.”

캠퍼스에 흉칙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한양대학교 차·부장급 직원 중 최대 3명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있다. 노동조합은 법인의 ‘조합원 빼내기’ 시도를 우수한 조합원을 징발해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공격적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합원은 한양대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십수 년 간 함께 피땀 흘린 소중한 동료이자 최고의 인재이다. 직원인 동시에 조합원인 우리는 법인의 편의에 의해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제라도 법인은 법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법인의 노령화 문제도 자구적으로 해결 못하면서 어찌 한양학원의 큰 일을 해내갈 수 있다는 것인가. 법인 사무국에서 빼내 간 직원의 자리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대학의 역량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정책에도 반하는 법인의 무리한 요구는 이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빼내 간 차·부장급의 은퇴가 도래하면 그 때 또 다시 대학에 손을 벌리려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법인이 편하자고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근시안적, 자기편의주의적 요구를 거두고 한양대학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하라. 그것이 한양학원 법인의 존재 이유이다.

. 끝.